당신이 찾는 모든 책
예스24에 있다!
yes24
지금바로
주문하기

기독일보

VISION 2035
가장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신뢰받는
에너지 화학기업 S-OIL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801호

"동성애 실태 바로 알려야"… 서울 중심에 30만 모인다

거룩한방파제, 퀴어행사 반대 대회 앞두고 오는 12일 기자회견
동성간 성접촉 통한 에이즈·성병 감염 급증
30대 이하 감염 증가 주세…국가 재정 부담
언론, 동성애 인권적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

지난해 6월 1일 서울 대한문 앞 일대에서 열렸던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기독일보 DB

기독시민단체인 '거룩한방파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일환인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오는 14일 개최를 앞두고, 동성애 문제에 대한 객관적 보도를 요청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단체 측은 "이번 기자회견은 오는 14일 열리는 퀴어축제에 앞서 동성애의 실태를 제대로 알리고 사회적·보건적 문제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거룩한방파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국 내 동성간 성접촉을 통한 에이즈(HIV)와 성병 감염의 급증 △특히 30대 이하 젊은 층의 감염 증가 추세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자료와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거룩한방파제에 따르면 최근 한국 내 에이즈 신규 감염자 중 절반 이상이 동성간 성접촉으로 감염되고 있으며, 특히 30대 이하 젊은 연령층년들의 감염률이 증가했다. 또한 한국의 마약사범 역시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했는데, 동성애자들의 마약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젊은 층들에 대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소아성애 범죄 피해 아동들의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학술연구팀장 고두현 원장(내과 전문의)은 "소아성애 피해 아동의 자살 시도율이 일반인의 6배에 달한다"며, "아동 성폭력 경험자 중 자살 시도율은 21.1%로 무경험자의 3.8%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밝혔다.

고 원장은 특히 "아동 음란물에 의한 온라인 성범죄자 중 55.1%가 실제 성폭력 범죄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아동 음란물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 성범죄자들이 아동 음란물에 자극받아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에서 파일공유사이트에 평균 1분에 하나씩 아동 음란물이 올라오며 한해 다운로드 횟수가 400만 편에 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고 원장은 "우리나라의 아동 음란물 관련 법규는 해외에 비해 경미한 수준으로, 미국과 같이 아동 음란물 소지만 해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다시 가해자로 전환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룩한방파제는 "언론이 동성애의 인권적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해 편향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가 절실하다"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호소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매년 퀴어축제 반대 행사인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30만 명의 시민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회는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리는 날인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및 숭례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거룩한방파제 관계자는 "우리가 퀴어축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혐오가 아니라 동성애자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우려 때문"이라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방파제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진화론, 창조론 공격하며 복음의 터 무너뜨려"

제5차 인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9일 송월교회서 열려

제5차 인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9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송월교회(담임 박삼열 목사)에서 열렸다.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와 예장합신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발제자들로 노휘성 대표(전 과학교사, 예스티칭연구소 소장·사진)는 '나는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답을 찾았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대안', 육진경 대표(전국교사회복연합 대표)는 '교과서에 나타난 성혁명 교육에 대한 분석과 대안', 현숙경 교수(침신대)는 '문화막시즘과 성혁명 역사'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첫 발제자로 노휘성 대표는 "왜 성경이 창조를 가르쳐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창세기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복음을 사수하려면 창세기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노 대표는 "2009 개정교육과정 고1과학(금성)에는 '폭발이 일어난 직후 우주는 극도로 높은 온도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서술됐다. 이는 가설로 논란이 분분한 빅뱅이론이 마치 역사적 기정사실인 것처럼 서술돼 있어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 다음 세대들의 비판적 사고는 삭제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현재 과학교과서는 진화론을 통해 우리 존재의 탄생이 물질의 충돌과 반응의 결과에 불과한 곧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시켜 교육하고 있다"며 "2015 개정교육과정 과학1(천재)는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을 진화한다'고 명시했다. 논리적으로 맞지만 진화론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나 "교과서는 진화론적 관점에 입각하면서 다음세대들이 진화론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게끔 세뇌하고 있다"며 "철저한 무신론자인 과학자 칼 세이건은 우주 역사 138억 년 가운데 인류는 고작 약 20만 년만 살았다며 인간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소중하지 않는 존재로 격하시켰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2015 개정교육과정 고1(천재)에서 인간에 대해 '지구에 현생 인류가 출현한 것은 약 20만 년 전으로...'라고 서술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세대들은 빅뱅, 진화론 등 유물론적 인간관으로 길들여지면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닌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끔 교육받는다"고 했다.

그는 "유물론은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흄이 감각 경험을 통해 경험되는 것만 진리라며 주창한 자연주의에서 비롯됐다. 이를 통해 우리의 경험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었고, 이러한 세계관이 임마누엘 칸트를 통해 발전됐다. 그는 감각 경험과 이성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만 진리의 대상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헤겔은 신과 종교는 인간 정신 활동의 산물로 관념에 존재하는 완전한 인식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칸트와 헤겔을 통해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절대자 하나님은 제거됐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상상과 신화로 구성된 문서로 격하시킨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자연주의적 개념은 물질세계에서만 진리가 발견될 수 있다고 하기에, 여기에서 물질세계만 다루는 진화론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세대들에게 교과서를 통해 진화론적 관점이 사고의 틀이 된다면 ▲창조로 시작한 성경 역사는 거짓 인류의 첫 조상은 아담이 아니다 ▲죽음은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들어온 게 아니다 ▲인류 역사는 계획과 목적 없이 진화한다 ▲인류가 순종해야 할 절대 기준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결국 진화론으로 첫 아담의 범죄가 삭제되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는 복음이 성립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진화론의 후예들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다. 엥겔스는 '다윈이 생물의 진화법칙을 발견했듯이, 마르크스는 인류의 진화법칙을 발견했다'며 진화론과 공산주의는 한 뿌리라고 서술했다. 또한 히틀러의 나치즘은 진화론에 기초한다. 그는 『나의 투쟁』에서 우생학에 근거한 대학살이 향후 인류의 진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서술했다"고 했다.

또한 "최근 유발하라리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자 중 한 명이다"라며 "창조론을 사수하지 않다면 동성애와의 전투는 오히려 유물론적 사고관을 강화할 따름"이라고 했다.

주요 관계자들과 강연자들이 단체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그러면서 "진화론자들은 기독교 창조론의 터를 무너뜨릴 때 사회주의, 마약, 가정파괴, 안락사, 페미니즘, 학교 폭력, 문화 막시즘, 동성애 등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고 인식했다"며 "제일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창조론을 무시하고 유신진화론을 주창하며 '팀킬'하는 존재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한 기독교방송 유튜브에선 유신진화론을 설파하고 있다. 또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는 유신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서울신대는 결국 유신진화론의 폐해를 인식하고 그를 징계했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언론은 박영식 교수를 사학에 의해 핍박받는 피해자로 인식시켰다. 이처럼 유신진화론은 교묘히 교계에서 똬리를 틀고 있다"고 했다.

노 대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창조신앙에 입각해 다음세대들에게 창조-타락-구속-하나님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개회 예배에선 김선우 목사(합신동성애대책위원장)의 인도, 변세권 목사(직전 합신총회장)의 기도, 진유신 목사(직전 인천기독교총회장)의 설교, 박삼열 목사(송월교회 담임)의 환영사, 정일량 목사(현 인천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의 축도가 있었다. 노형구 기자

"모든 민족과 국가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 2면

"함께 또는 여럿 목소리로 들어 더 좋은 찬양 앨범" 》 23면